



## 4.7조 지원사격… 한화 김동선, 유통 판 흔드나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출범  
아워홈 인수 등 M&A 행보에 주목  
계열사 5년간 연 성장률 30% 목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미  
래비전총괄 부사장  
(사진)이 그룹 그늘에  
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지주사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 지주회사  
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를 출  
범시키고 김 부사장이 이끌어온 테크·  
라이프 부문 계열사 7곳(한화비전, 한화  
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한  
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  
홈)을 모두 편입시켰다. 이로써 김 부사  
장은 유통과 첨단 테크를 아우르는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시험대  
에 오르게 됐다.

김 부사장은 지금까지 거침없는 인수  
합병(M&A)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5월 국내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  
지분 약 58.6%를 8695억원에 인수하며  
급식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지난해 말  
에는 아워홈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급식  
사업부를 추가로 사들였고, 음료 제조  
사 푸어플러스와 도심형 고급 리조트 파  
라스파라(현 안토)까지 인수하며 식음  
료와 호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그룹의 휴니스중앙  
인수까지 추진하며 몸집 불리기 속도  
를 내는 모습이다.

2023년 6월엔 미국 버거 브랜드 퍼  
브가이즈를 들여와 9호점까지 확장하며  
성공시켰고, 지난달 매각하며 약 600억원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월 11일~1월 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1)당 1706.3  
원으로 직전 주 대비 14.4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601.7원으로, 직전 주보다 18.1원 싸게 판매됐다. /뉴스1

에 가까운 차익을 챙겼다. 2024년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인수하  
고 지난해에는 자체 프리미엄 아이스크  
림 브랜드 '밴슨'을 론칭하는 등 외식 사  
업 수익성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도  
김 부사장의 홀로서기에 힘을 싣고 있  
다. 한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기점으로  
김 부사장이 관할하는 테크·라이프 부  
문에 2030년까지 총 4조7000억원(▲  
2026년 9000억원 ▲2027년 1조원 ▲  
2028년 8000억원 ▲2029년 1조2000억  
원 ▲2030년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  
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  
로는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신규 출

점과 2027년부터 예정된 갤러리아 명품  
관 재건축 등 설비 투자에 2조1000억  
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  
발(R&D)에 2조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  
이다. 또한 앞서 아워홈과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를 인수한 데 이어, 인접 시  
장 진출을 위한 추가 지분 인수 등 M&  
A에도 6000억원의 실탄을 배정해 외형  
확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배경  
에는 신설 지주사의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  
너리앤서비스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  
9%에 불과해, 존속 법인(305.7%)과 비  
교해 차입 여력이 매우 충분한 상태다.

이 같은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만큼 신설지주산하 계열  
사들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률  
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도 김동선 부사장에 뜨거운 기대  
감을 드러냈다. 한화갤러리아 주가는  
인적분할 발표 직후인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30% 가까이 폭등하며 1200원대에  
서 단숨에 2000원대를 돌파했고, 16일  
에도 장중 한때 2635원까지 치솟으며 6.  
18% 상승 마감했다. 지주사인 한화 역시  
14일 25.4% 급등한 데 이어 15일에는 52  
주 신고가인 13만6500원을 기록하며 연  
일 강세를 보였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복지고용 우려… 정년연장 보다 ‘연공급제’ 개선 먼저

### 정년연장 딜레마

‘복, 60세→65세 방안 추진 중  
“연공 아닌 직무·수행능력 기준  
동일 가치노동 원칙 확립돼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는 안을 추진 중인 가  
운데, 노동계와 경제계 등 이해당사  
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해  
를 넘겨,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늦어  
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저출산·고  
령화에 따른 숙련 일자리 안정화, 정

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일치  
를 위한 법적 정년 연장 의무화에 찬  
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경제계는 정년 연장  
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  
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  
차 노동시장 간 임금·복지 등에서 크  
게 격차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정년 도  
달자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줄어 미래세대의 손해  
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 반대론자들은 ‘퇴직 후 재  
고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계속고용제’를 선호한다.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론이 엇갈리  
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논의하기 앞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  
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  
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취업  
에만 성공하면 연공급제 하에서 안정  
적인 고임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전체 일  
자리의 10%대인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도 나온다.

연공급제를 다수 채택하고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인 한국에  
서, 기업이 고임금인 고령층 노동자  
의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부  
담을 5년 동안 떠안어야 한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임금체계 개  
편 없는 정년연장은 사실상 복지고용  
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고용은 기업이 고령 인  
력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  
책(정년연장 등) 때문에 인력 고용을  
강제로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나유리 기자 yul115@

### 메트로 한줄뉴스



▲ 靑, 트럼프 ‘반도체 포고령’에 “주요국 대비 ‘불  
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

▲ 송언석 “靑, 영수회담 제안 묵묵부답…장동혁  
단식 펌웨 자제하라”

▲ 우원식 의장, 싱가포르·인니 방문…협력 확대  
논의

▲ 與 박수현, ‘1인1표제’ 이견에 “당권투쟁으로 보  
일 언행 자제해야”

▲ 나경원 “이참에 여야 불문 공천뇌물 전수  
조사”

▲ 이 대통령 “가짜뉴스·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파  
괴 중대범죄”

# 최태원 “韓 기업, 성장할수록 불리… 규제·정책 혁신 필요”

(SK그룹·대한상의 회장)

최 회장, 韓 경제성장 둔화 우려  
계단식 규제·경제형벌 등 문제 지적  
“새로운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기업규제환경을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KBS 일요진단’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공회의소

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리소스 탈출’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 세대의

미래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성장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배 재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

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규제 환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억제하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기업 투자에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과감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

력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셈.amazonaws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관광과 산업 전반에서 추가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1면 ‘4.7조 지원사격…’서 계속

**경영권 승계 구도 ‘선명’  
증권가 한화 목표가 상향**

## 9조 ‘샤힌 프로젝트’ 편입 임박… 감산 원칙·범위 혼선

###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신규기동 기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계 반발… “특별취급 받고 있어”

정부가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9조원 이상이 투입된 에쓰오일(S-OIL)의 대형 석유화학 사업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설비들은 감산 압박을 받는 반면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신규 설비의 가동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현재 공정률이 약 92%로, 올해 6월 기계적 완공을 거쳐 하반기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 생산시설로, 가동 시 연간 에틸렌 180만톤, 프로필렌 77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공사현장. /에쓰오일

만톤, 부타디엔 20만톤, 벤젠 28만톤 등을 생산하게 된다.

문제는 에틸렌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기준 NCC 설비들이 감산과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샤힌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규모 공급원으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설비 가동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의 수급 조정 효과가 약화되고, 구조조정 부담이 기존 설비와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울산 산업단지 내 수급균형이 흔들릴 경우 손실 규모가 연간 4000억원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애쓰오일은 아직 상업 가동 전 단계에 있는 신규 고효율 설비를 기준 감산 논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설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최신 대형 설비까지 일괄적으로 감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업계 전반에서는 신규 설비만 예외로 둘 경우 감산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가 사실상 구조조정 논의에서 ‘특별취급’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외교적 부담으로 강도 높은 조정

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신규 대형 설비 가동과 감산 기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설비 가동 여부를 넘어 구조조정 원칙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이 개별 기업이 아닌 하나의 석유화학콤플렉스로 움직이는 구조인 만큼 특정 기업의 문제 가 아닌 산업 전체 차원의 수급 조정과 국내 경쟁 완화, 글로벌 경쟁력 유지까지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기술적·공학적으로는 산업이 지향해야 할 고효율 설비가 맞다”면서도 “신규 설비에만 정책적 예외가 적용되면 시장 왜곡과 공급 불균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콤플렉스 구조를 감안해 국내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 글로벌 전기차 가격인하 경쟁… 현대차·기아 등 K-기업 ‘맞불’

### BYD·테슬라發 ‘차킨게임’ 움직임

연초부터 국내 전기차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기아와 미국의 테슬라도 가격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전기차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 전환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구매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모델 3의 퍼포먼스 트림 가격을 693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인하했다. 모델 Y는 프리미엄 RWD를 4999만 원으로 조정하며 국내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3를 3500만 원대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산 NCM 배터리 탑재 모델의 경우 보조금이 늘어나 국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YD는 지난해 가성비 모델로 안정적인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6107대 가운데 가성비 모델인 아도

3(3076대)와 씨라이언7(2662대)이 전체 판매량을 이끌었다. 중형 SUV 씨라이언7은 정부 보조금을 반영하면 4000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입소문 나면서 출시 4개월 만에 이같은 성적표를 기록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최대 590만 원, 아이오닉 6에 최대 5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 역시 대형 전기 SUV EV9를 대

상으로 최대 600만 원 상당의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전기 SUV 세단에 최대 8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 전기차 시장 전반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성차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단기적인 전기차의 수익성이 감소되며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상승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진수 현대자동차그룹 HMG 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의 대중적인 전기차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둔화되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성장성·수익가치 재평가 전망

증권가는 이번 인적분할이 김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명확히 하고 신사업 성장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잇따라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한화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했으며, 흥국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17만 5000 원과 15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주력 계열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에 나서면서 성장과 수익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룹 유통 부문 핵심 축인 갤러리아백화점이 역성장 중인 상황은 빼아프다. 지난해 1~3분기 한화갤러리아 영업 이익은 3억 원에 그쳤다. 전체 매출 중 약 80%를 차지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이 2년 연속 역성장했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 명품관 매출은 약 1조 1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광교점(-2.5%), 대전 타임월드점(-3.6%), 천안 센터시티점(-7%)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가 급감하며 전체 매출 중 약 40%가 명품에서 나오는 갤러리아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사장은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정면돌파에 나선다. 압구정 명품관에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6년간 공사를 진행하는 것. 단순한 리뉴얼을 넘어 압도적인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이탈한 VIP 고객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승부수다.

4조 7000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해 시험 대에 오른 김 부사장이 ‘본업 경쟁력 회복’과 ‘신사업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성공적인 훌로서기를 즐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정기공채 기업 줄고 수시·경력채용 확산... 진입문 더 좁아져

## 청년세대가 보는 정년

신입보다 경력 선호, 진입장벽 높아  
취준 장기화로 소득·경력 단절 커져  
AI 도입 확산에 일자리 대체 우려도  
정년연장 논의, 청년고용 변수 부상



송서울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



이용석 공인노무사.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 기업에 닥친 대내 외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기업과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 반대 측은 정년 도달자의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 세대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년연장 찬성 측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도 고용 안정 등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 ◆ 청년은 이미 '채용 절벽'

송서울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 신입직보다 경력 중심의 채용이 일변화된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게다가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청년을 하나로 묶어 '세대갈등'으로 프레임 짓기보다는 개별 청년을 구분 지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 갈등 문제로 비화한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은 정년연장에 친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의 원인을 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를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구직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 총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적 수혜가 본인이 아닌 부모세대라고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중요법'

이용석 노무사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년연장 논의는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제기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시기 사이의 괴리 등

은 필요한 논의이긴 하나, 정년연장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인사 투자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게 더욱 그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서울 위원도 법적 정년 연장은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60세 정년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

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 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강구해야"

이용석 노무사는 "정년이 없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연공급 체계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나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서울 위원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 고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직무 중심 임금체계 전환이 핵심"

### » 1면 '복지고용 우려...' 서 계속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를 둘러싼 프레임에서 벗어나,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이 아닌 직무나 직무 수행 능력이 기준이 돼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동일 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서울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법정 정년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토록 해결하려 노력했

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경력과 소득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법정 정년 연장이 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 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사평가체계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비롯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LCC 4분기 줄적자... 재무체력 '한계 시험대'

## 환율·유류비 부담에 운임 격차 축소 유상증자·노선 재편으로 수익성 방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4분기에도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 체력 한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이스타항공과 부분자본잠식의 티웨이항공을 비롯해 주요 LCC들의 고부채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사는 유상증자 등 자본보강과 함께 노선·기단 운영 전략 재조정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LCC 4곳 모두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웨이항공의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손실 컨센서스는 319억원으로 지난 2024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제주항공

도 연결 기준 216억원의 영업손실이 전망돼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별도 기준 4분기 영업손실이 각각 72억원, 140억원으로 집계돼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수요 회복 속도 보다 공급 확대가 더 빨랐다는 점이 거론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4분기 국적 항공사 11곳의 공급 좌석은 3892만여석(전년 대비 +8.5%)이나, 여객 수는 3339만여명(+5.5%)에 그쳐 탑승률이 85.8%로 2.5%포인트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과정에서 중복 노선 공급 유지 조건을 부과한 뒤 대형항공사(FSC)의 재운항·증편이 이어진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원가 측면에서는 유류비(영업비용 약 30%)의 달러 결제 구조 탓

에 환율 부담이 커졌고, 기업결합 이후 비수기 기준 FSC-LCC 운임 격차가 10만원 안팎까지 좁혀진 점도 LCC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지목된다.

4분기 연속 적자 전망 속에서 LCC들의 재무 체력은 한계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99.4%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각사는 노선과 기단 운영 전략을 재조정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진에어는 고수익 노선 중심의 공급 재편과 함께 안전 운항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시뮬레이터 도입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티웨이항공은 화물 운송량을 2023년 859톤→2024년 1700톤→2025년 말 2700톤으로 늘리고, 자카르타 운수권 확보와 1912억원 유상증자로 대형기 도입과 재무 보강을 병행한다. /유혜은 기자 dhaledah@

## 취업플랫폼서 '임금체불 사업주' 바로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24' 오픈 API 사업자번호로 실시간 조회

민간 취업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주의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이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민간 취업포털도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그쳐 채용 공고와의 직접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오픈API가 개방되면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 시스템에 입력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 화면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24는 이미 행정용으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 API를 활용해 왔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안정 기관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용24는 해당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미제 처리해 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는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API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이용 대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5000피 향한 질주 속 ‘증시 쏠림·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 14.9% 반도체 실적 따라 6000피 가능성도 상승보다 하락 종목 66개 더 많아 주요 15대 품목 중 9개 수출 역성장美 관세 불확실성 등 변수도 산적

코스피가 언제 5000선 고지를 밟을 것인가.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은 엇갈렸지만, 반도체 랠리가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코스피는 그간 1000 단위씩 ‘점프’하는데 9~18년이 걸렸지만 3000에서 4000에 이르는 데 4년 9개월, 4000에서 4840.74(16일 종가)까지 오르는 데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2%)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커 금리나 실적 등 변수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흘들리고 미국발 관세전쟁 및 지정학적 공포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 ◆ 온천파는 시간 문제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14.9%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5000 도달은) 1분기가 아니라 1월에도 가능해 보인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 설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도 올려 잡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4600에서 5650으로 22.8%나 대폭 올렸다. 이 증권사 김대준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향후 1년간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주당순이익

이 작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28.8%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엔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적어도 4100을 지킬 것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기존 3500~4500에서 3900~5200으로, 유안타증권은 3800~4600에서 4200~5200으로 전망치 범위를 올려 잡았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고대역 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RAM 계약 가격의 ‘원팀 점프’가 2026년 코스피 실적 눈높이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실적이

추가로 올라가는 ‘베스트(최상)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60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올해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6000피’ 견인의 핵심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성장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꼽았다.

## ◆ 쏠림과 착시, 트럼프 리스크 경계해야

‘코스피5000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도한 쏠림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올 들어 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427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493개로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66개 더 많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등 오르는 업종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온도 차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 이후 코스닥 상승률(3%)은 코스피 상승률(14.9%)의 5분의 1 수준이다. 취약한 한국경제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한 덕이

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석유화학(-11.4%)·2차전지(-11.9%)·철강(-9.0%) 등 주요 15대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증시 쏠림이 이어지면 그 만큼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시장 한 전문가는 “증시 랠리에 환호하는 대신 우리 경제의 쏠림을 완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만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시 주변을 맴도는 단기 악재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이 산재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우려는 주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그린란드를 두고 커지는 국제 갈등도 문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가격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슈에 따른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해외투자자 복귀 유도, 원화가치 회복방안 절실”

### 환율 1500원 위협

올해 초 대비 31.8원 오른 수준  
美 관세, 해외투자 확대 등 영향

국민연금, 선물환 매도로 달러 공급  
환율 안정 위해 중·장기적 대책 필요

지난해 말 달러당 1440원까지 하락(원화값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대외 불확실성 속으로 환율이 1500원 선을 목전에 두면서 고환율이 ‘뉴노멀’이 됐다.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정책과 원화 경쟁력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이례적 원화 약세…국내외 요인 다수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73.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올해 초 가격인 1441.8원에서 31.8원(2.21%)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환율이 연 평균 1422.16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새해 들어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지난 2022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동안 지속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와의 동조율이 높은 위안화·엔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가 하락하자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수출기업들이 지속되는 강달러와 관세 대응·현지 투자 등을 이유로 달러 보유를 늘리는 것도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지 않은 해외보유금은 1144억달러(약 170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도 원화 가치를 끌어 내렸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0~11월 두

달 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123억 3700만 달러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해외 투자액이 이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에는 악재다.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란을 겨냥해 미국이 항모 전단을 재배치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고, 그린란드 영유권을 놓고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고조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거론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 ◆ 당국개입 지속…‘중장기 대책’ 필요

달러당 1470~1480원 수준의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는 가운데, 한국 외환당국은 물론 해외 외환당국도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가치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중인데도, 원화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에서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개최한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환율이 재상승한 것은 4분의 1 정도가 국내 요인이고, 4분의 3

정도는 해외에 기인했다”면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148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맞지 않는다”라며 이례적으로 해외 통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냈다. 원화 대비 달러 강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부와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억제를 위한 개입을 지속 중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부터 해외 자산의 선물환(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에 확정하는 계약) 매도를 통해 달러 공급을 늘리고 있고, 정부는 수출기업의 달러

판매와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자 대규모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현재의 1470~1480원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향후 환율 안정을 위해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 원장(전 삼명대 경영경제학 교수)은 “환율 불안은 단순히 1500원 선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고환율 국면은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달러 강세와 국가 부채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해외 투자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환율 급등이나 달러 쏠림을 억제하는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적으로는 24시간 외환 시장 개방과 환헤지 상품 유통을 통해 달러 없이도 해외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통화 운용의 신뢰 회복과 수출경쟁력 및 산업 다변화 정책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韓 환노출 달러자산,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 25배 수준”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  
‘환헤지 쏠림’ 가능성 언급도

우리나라 달러자산의 환노출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규모 대비 25배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국내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자산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떠안

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월간 거래량 기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매우 큰 국가로 분류됐다.

이 수치는 각국의 외환시장이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떠안

고 가능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했다.

IMF는 “일부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

헤지 쏠림’ 가능성도 언급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시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시장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 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최근 ‘전략적 환헤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노출 상태로 해외주식 투자에 나서는 일명 ‘서학개미’의 경우, 개인의 자산 운용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관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재경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고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개인은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 intelligence**kt, 당신과\_\_ 미래 사이에**

전보  
1885년 시작

인쇄전신기  
1930년대 최초 도입

1가구 1전화  
1970년대 보급 확대

PC통신  
1980년대 시작

무선전화기  
1980~90년대 보급 확대

스마트폰  
2007년 시작

AI  
그리고 지금

## AI시대도 KT

시대가 바뀌어도  
연결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잊고,  
일상과 기술을 잊고,  
AI와 세상을 잊는 이름

AI의 시대 역시 KT,  
K intelligence입니다

# 미 반도체 관세에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미국, 최대 100% 관세 부과 경고  
구체적 사항 확인하고 적극 소통  
앞선 대만 무역 합의 내용 참고할 듯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앤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정무수석에 흥의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정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

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 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

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 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 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 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 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野, 이혜훈 청문회 거부… 與 단독개최 고심

국힘 “결격 사유 차고 넘쳐… 보이콧”  
청와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입장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법 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당이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인사청문회) 자료도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자리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의미다.

현재 이혜훈 후보자는 확장 재정,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지만, 본인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투기·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동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들이 나서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별하겠다고 한다.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이 후보자 세 자녀) 증여세 완납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세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간사 간 합의한 시한을 넘겼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가 2000 건이 넘고 그중 15~20%(만 제출했는 데) 나머지는 낸다 해도 볼 시간이 있어야 하니 내일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도록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터지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16일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버티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 개최’ 가능성이나오고 있다. 여야가 19일 오전 10시 이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점이 ‘단독 개최’ 강행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아 대신 진행할 계획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 장동혁 나흘째 단식… 한동훈 ‘사과 표명’

“자유와 법치 끝까지 지켜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상특검(통일교정교유착·민주당 돈 공천)’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나흘째에 돌입한 가운데, ‘당원 계시판’ 사태로 인한 당 중앙 윤리위의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가 나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

었다면 더욱 벼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아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단식 나흘째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 단독 영수회담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와 과감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한국 물류·물류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등 ‘악법’들의 전면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겸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법제국회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도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정교유착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 당원 계시판 논란에 따른 제명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 표명이 나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두고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흥의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흥의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우상호 현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흥의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AI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 국내 손해율 낮춰 '본업 강화'…美 보험사 인수 '글로벌 도약'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 DB손해보험

성장 보다 '수익구조 안정화' 전략  
장기보험 신계약 수익성 제고해야  
상반기 美 포테그라 인수 마무리  
AI로 비용구조 재설계, 효율화 제고



DB손해보험 사옥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새해 경영 키워드로 '경영효율 우위 기반의 글로벌 보험회사 도약'을 제시했다. 국내에선 손해율 등 본업 수익성의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에선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Fo

rtregra) 인수를 축으로 성장 모델과 이익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본업 흔들림 '수자'로 확인

DB손해보험의 올해 과제는 '성장' 보다 수익구조의 안정화에 가깝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1조199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780억원) 대비 3781억원 감소했다.

손익의 결은 엇갈렸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7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61억원 줄었고, 투자손익은 8897

보 및 U/W 강화"를 전면에 둔 배경도 이 같은 숫자 흐름과 맞물린다.

건전성은 '방어'가 핵심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DB손해보험의 K-ICS(지급여력) 비율은 226.45%로 공시됐다. 금리·유동성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정종표 사장이 "유동성 및 금리하락 대응 투자손익 관리 강화"를 별도 과제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 포테그라·AI Impact·소비자보호

DB손해보험의 '글로벌'은 선언이 아니라 거래로 이어졌다. DB손해보험은 2025년 9월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발행주식 100%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 상반기 중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표 사장은 "포테그라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주사업은 매출 규모에 걸맞은 수익 규모를 확보하고, 베트남은 합병 시너지를 통해 연결손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AI는 '도입'이 아니라 전사 생산성·효율화 과제(AI Impact)가 꼽힌다. 신년사에 'AI 기반 생산성·효율화 제고'가 비용구조 재설계와 함께 뚜인 만큼, 2026년에는 혁신 프로세스 단위의 체

감 성과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실행 사례는 이미 나왔다. DB손해보험은 2025년 8월 AI 전문기업 티쓰리큐(T3Q)와 온톨로지 기반 '보상(청구) 자동화' 협력을 발표해 개념검증(PoC) 추진을 언급했다. 장기보험 보상 청구 자동화는 DB손해보험의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도전적인 사업이다.

마지막 축은 감독당국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기조에 맞춘 소비자보호 강화다.

정종표 사장은 신년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우며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관리를 강조했다.

결국 2026년 DB손해보험의 승부처는 손해율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동성 방어, 포테그라를 축으로 한 해외 이익 규모 확대, AI 기반 효율화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느냐는다.

정종표 사장은 "국내는 손해율 등 수익성 경쟁우위 회복을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해외는 신규 성장 모델과 수익규모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신한은행

### 봉사클럽 우수직원 시상

#### 2025 종합업적평가대회

신한은행은 820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본 투 투모로우(본 to TOMORROW')'를 주제로 '2025년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지난해 영업 현장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영업점과 직원을 포상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행사다.

신한은행은 ▲직원 가족을 위한 패밀리 프로그램(총 1400명 규모) ▲먹거리 광장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신한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우수직원 시상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웅그룹 진옥동 회장은 평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온 우수직원 중 대표 2명을 직접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대회사에서 "금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본업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며 "자발화된 전문역량으로 고객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것이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업의 본질이다"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분양 캘린더

### 동대문·김포 등 4개 단지 총 3260가구 청약 진행

1월 셋째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구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지엔하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A1)'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9~115m<sup>2</sup>, 3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도보권이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문장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사우4구역 공동1블록)에 '사우역지엔하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전용면적 84~151m<sup>2</sup> 3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며, 이를 통해 김포공항, 마곡 등으로의 서울 이동이 수월하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로또 단지'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강북 최초의 하이엔드 신축이란 점에서 가격 매력은 분명하다"며 "인근 대장 단지인 DMC파크뷰자이 84m<sup>2</sup>가 16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억~2억원 수준의 안전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파인 연희' 공사 현장.



'드파인연희' 견본주택 59m<sup>2</sup>A 유닛.

/성채리 인턴 기자

**SK에코플랜트, 강북 첫 하이엔드 전용 59m<sup>2</sup>·84m<sup>2</sup>에 일반분양 집중 모두 4베이, 각각 물량 100가구 넘어 단지내 도서 4000권 '최인아 책방'**

A씨는 "가족들과 살 집으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꼈다"며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본주택 1층에선 단지 모형과 입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유닛 59m<sup>2</sup>A, 84m<sup>2</sup>B 두 가지 타입이 마련돼 있다. 전용 59m<sup>2</sup>와 전용 84m<sup>2</sup>에는 일반분양이 집중돼 있어, 각각 1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두 타입 모두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라 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됐다. 확장된 오픈 빌 코너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거실과 주방 모두 개방감이 느껴졌다.

전용 59m<sup>2</sup>은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고 안방에는 큰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m<sup>2</sup>는 거실·주방·침실 3개·욕실 2

개에 더해 수납공간인 펜트리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큰 드레스룸을 선호해 옷방을 따로 두려는 수요도 많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특장점"이라고 말했다.

유상 옵션으로는 방음 특화 '스튜디오 룸'과 반려동물 특화 인테리어(펫테리어)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펫테리어 옵션을 선택하면 미끄럼 방지 바닥, 슬라이딩 도어, 펫 전용 욕실 등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책을 큐레이션해 주는 '최인아 책방'의 도서 약 4000권과 전문 사서가 운영하는 북클럽이 들어선다.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피트니스·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1인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시설이 조성된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은 2030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다. 40대 박지호 씨는 "서대문구에서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입지는 만족스러워서 근처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며 "다만 전용 면적 59m<sup>2</sup>은 방이 조금 작게

느껴졌다. 드레스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대신 안방 면적을 더 키웠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통과 학군 입지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이 길어서 이용이 제한적이고, 단지가 일자 형태라 가좌역과 멀리 떨어진 101동은 역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자녀들이 배정될 연희초등학교는 경사가 높은 궁동산을 넘어 25분 넘게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보통학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드파인 연희는 사전예약 신청을 받지 않아 주말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7000명~8000명 정도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로 묶여 있어 경쟁률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약 4000건 이상은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 기자 cr56@

/안상미 기자 smahn1@

K-디스플레이업계, '8.6세대 OLED' 경쟁

## 선제투자·양산 vs 리스크관리 강화

〈삼성〉

〈LG〉

### 삼성디스플레이

8.6세대 OLED 생산라인 4조 투자  
양산 돌입… 유상샘플 고객사 출하

### LG디스플레이

신중론 유지… 기존 인프라 대응  
로봇 적용 등 시장 성장세 주목

산 사업장에서 성공적인 가동을 기원하는 출하식 및 안전 기원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에 반해 LG디스플레이에는 최근 8.6세대 OLED 투자와 관련해 시장이 아직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존 인프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8.6세대 OLED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는 데는 기술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이 커질수록 유기물을 고르게 입히는 기술 난도가 높아지는 만큼, 초기 수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투자가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6세대 OLED를 둘러싼 접근법은 엇갈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목하는 방향은 로봇 등 차세대 응용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로봇분야를 성장동력축으로 삼고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스마트폰과 IT 기기를 통해 중소형 OLED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전용 패널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CES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OLED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의지를 드

러냈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13.4인치 원형 OLED를 적용한 'AI OLED' 봇을 공개했다. 폴더블, 초박형 등 기존 모바일·IT용 OLED를 로봇과 웨어러블, AI 액세서리로 확장한 것이다. 8.6세대 IT용 OLED 양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IT 기기와 로봇, 엣지 디바이스를 OLED포트폴리오에 두겠다는 전략이다.

LG디스플레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을 구현한 P(플라스틱)-OLED 패널을 공개했다. 유리 기반 OLED와 비교해 무게가 적고 유연성이 높아 로봇의 곡선 형태의 얼굴이나 관절 등에 적용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차량용 탠덤 OLED 기반의 휴머노이드용 OLED 도 선보였다. 탠덤 OLED는 레드·그린·블루(RGB) 유기발광총을 복수로 쌓아 기존 OLED 대비 휙도 및 수명을 높인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8.6세대 OLED 투자는 지금 부담이 큰 만큼 기업별 재무 여건과 시장 전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IT 기기와 로봇 등 신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는 업계의 공통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 유기발광ダイ오드(OLED) 양산을 본격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LG디스플레이에는 신중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IT 기기와 로봇 등 차세대 응용 패널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대응에 나서는 공통된 흐름을 띠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8.6세대 OLED 양산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내부적으로 수율 등 양산성이 검증된 샘플을 고객사에 유상으로 출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지난 2023년 4월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월 1만 5000장 규모의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 일에는 8.6세대 생산 라인이 있는 아

## "전고체 양극소재 개발로 제2의 도약"

에코프로 이동채 창업주 사업장 점검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사례를 맞아 주요 사업장을 잇달아 찾으며 기술 중심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소재 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기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에코프로는 이동채 창업주가 지난 7 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을 방문해 미래 소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은 에코프로가 청주에 처음 터를 잡은 이후 흡착제 등 친환경 소재와 촉매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곳으로, 그룹 기술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이곳에서 에코프로의 씨앗을 뿌려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소재 개발이 에코프로의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동채 창업주는 올해 시무식에서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기술로 성장해 온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있다"며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운데)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코프로

이동채 창업주는 지난 5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에코프로에이치엔 초평사업장도 방문해 생산 시설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초평사업장은 도가니와 도판트 등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거점으로, 대지면적 약 5만m<sup>2</sup> 규모다.

특히 이곳은 배터리 양극재 소성 공정에 필수적인 도가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도가니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초평 사업장 가동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 기대가 나온다.

이동채 창업주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주요 외신 '정의선號 AI·로봇 비전' 주목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호평 이어져  
美 AP "실수나 부족함 없이 뛰어나"  
英 테크레이더 "동로로 활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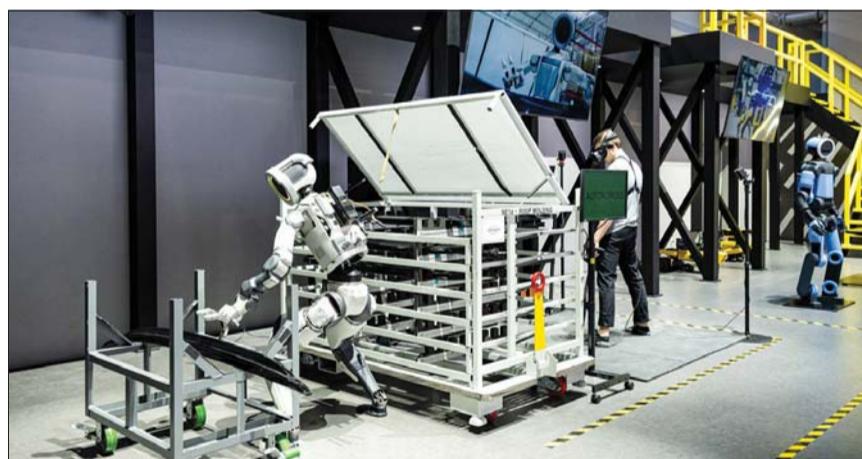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공들여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미국拉斯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통해 피지컬 AI 비전과 로봇 기술을 공개했다.

1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AP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도적인 로봇 제조업체들도 실수를 우려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힘들다"며 "아틀라스의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 없이 아주 뛰어났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ES 2026에서 공개된 주요 로봇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아틀라스의 방수기능과 배터리 자동 교체 기능을 거론했며 "올해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오랜 테스트를 거친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라고 밝혔다.

해외 자동차, 테크 전문지 등에서도 현대차그룹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추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워크는 '현대차의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은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차그룹은 로봇과 인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현대차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아닌 로봇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IT 전문매체 버지는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경쟁

할 모델이라고 전했다.

매체들은 실제 현대차그룹 생산 시설에 투입되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가 제조 현장에서 인간의 동료로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 디지털 미디어 마셔블은 "현대차그룹은 언젠가 아틀라스로봇이 가정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로봇 전문지 로봇스타트는 "현대차그룹이 가고자 하는 로봇 생태계는 AI 로봇의 대량생산과 사회적 구현을 가능하게 해 기술 측면뿐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틀라스는 8일(현지시간) CES 현장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 출시

온·습도 조절 등 욕실 최적 상태관리

LG전자가 프리미엄 에어컨·공기청정기를 통해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욕실 공기질을 위한 온도, 습도, 위생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19일 신개념 욕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가 내놓는 첫 번째 욕실 에어케어 제품이다.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온풍-송풍-환기를 자동으로 전환해 욕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의 '공간 케어'모드는 추울 때는 온풍으로 욕실을 미리 데우고, 습도가

높을 때는 송풍과 환기로 답답함을 없앤다. 온도 온도와 습도가 각각 22도와 50%에 도달하면 대기 상태로 자동 전환된다.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에 활용되는 UV나노(UV nano) 기술로 차별화된 '위생 케어'도 장점이다.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은 '프리미엄' 모델과 듀얼 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배기팬이 포함된 '프리미엄 듀얼' 모델로 출시된다. 기존 사용 제품이 있더라도 타공 외 별도의 공사 없이 1시간 전후로 설치 가능하다. 일시불 구매와 구독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프리미엄 기준 각각 99만원(프리미엄 듀얼 119만원), 2만 4900원(6년 기준)이다.

/차현정 기자

## 현대차 아반떼, 美 누적판매 400만대 돌파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미국 출시 24년 만에 누적 판매 400만대를 넘어섰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이 주류인 미국 시장에서 세단 모델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에 출시된 한국 차량 가운데 최초 기록이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반떼는 1991년 미국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에서 총 401만 661대가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아반떼의 꾸준한 인기에 대해 다양한 라인업과 가격 경쟁력을 주

요인으로 꼽는다. 가솔린 모델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고성능 N 모델까지 선택지를 넓혔고, 미국 내 권장소비자가격(MSRP)도 2만 2000달러 중반대로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등 동급 경쟁 차종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품성과 안전성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아반떼는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북미 올해의 차(NACTOY)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를 획득했다.

/원관희 기자

# 연임 제한 폐지법 '촉각'…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빨라졌다

여야 10명의원 中企협동조합법 발의  
통과 가능성 높지만 '미통과' 관측도

김기문 회장 '추가연임' 최대 변수  
노조 면담서 "3연임 출마 안 한다"

노조 반대 목소리, 부회장 일부 온도차  
보궐 선거시 임기규정 문구 관심 집중

1년 뒤에나 있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가능케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마지막 날 깜짝 빌의하면서 내년 2월에 치러질 28대 회장 선거에 도화선을 닦긴 모양새다. 관전 포인트는 현재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추가 연임 여부다. 일단 김 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3연임을 위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25명 부회장 중에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더해 중기중앙회 주변에선 벌써부터 선거에 훈수를 두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 '연임 제한' 없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또 김 회장이 노조와 한 약속과 상관없이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내년 초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계 만행인 중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맨 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 두번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오른쪽)과 락 테이크를 자르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앙회의 내홍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우선 관건은 선거전에 불을 지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데다 제1야당까지 합심한 만큼 통과 가능성 높다는게 중기중앙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노조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전국공공운수사업회서비스노조소속인 중기중앙회 노조는 정치권, 언론, 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 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회장에게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는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은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900개에 가까운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6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

년까지 23~24대 회장을 역임한 후 25대를 건너뛰고 2019년부터 26대를 거쳐 현재 27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임기가 4년인 중기중앙회장만 '연임+연임'으로 16년째 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서 개정안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과 '3연임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 상황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긴 '이사장(회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곱씹어보면 차기 회장이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

인데, 그렇게되면 연임 이슈도 자연스럽게 빗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면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 빨라지는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이목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내년 2월에 치러질 제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회장이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기고 박수칠 때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노조와 약속을 깨고 3연임에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법 통과를 전제로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땐 선거 없이 추대하거나 또 다른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뤄야한다.

차기 회장 선거전이 김 회장을 포함해든, 그렇지 않은 경쟁구도가 연출될 경우 자칫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선으로 진행한 25·26대 선거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럴 경우 업계 만행인 중기중앙회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과거를 답습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리더를 뽑는 과정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난방비 줄이는 '고단열 창호'로 시장 공략

### LX하우시스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 적용  
로이유리 1장으로 단열 1등급

LX하우시스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고단열 창호로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18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창호시장 1위 업체로 'LX Z:IN(LX지인) 창호 뷰프레임'(사진)을 선보이

고 있다.

'뷰프레임'은 국내 창호 업계 최초로 창틀은 거의 안 보이고 창짝만 보이는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물론 한장의 로이유리만으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구현이 가능한 뛰어난 단열성을 확보했다.

특히, 창짝과 창틀 모두에 단열성을 높이는 다중 챔버 설계기술을 적용해 프레임 두께는 줄이면서도 1등급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마치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처럼 창틀·창짝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구조 덕분에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효과가 커지게 한 것이다.

뛰어난 단열성능과 함께 제품 전반에는 미니멀 디자인을 적용했다. '뷰프레임'은 베젤리스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물론 창짝 높이까지 최대 14mm 줄여 슬림해진 프레임으로 더 넓어진 뷔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70%·월 최대 2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하루 15분 앓기만 해도 케겔 효과"

### 요실금 치료기 '테라솔U' 출시

코웨이가 가정용 의료기기 브랜드 '테라솔(Therasol)'을 론칭하고 첫 라인업으로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테라솔 U'를 출시했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가정용 의료기기 신규 브랜드 '테라솔'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Therapy)와 해결책을 의미하는 솔루션(Solution)의 합성어다. 집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코웨이는 테라솔을 기반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테라솔의 첫 제품 '테라솔 U'는 중장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실금을 집에서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를 돋는 '비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 장치'와 근육통 완화를 위한 '개인용 온열기' 기능이 결합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입증받았다.

'테라솔 U'는 사용 시 반복적인 저주파 자극이 골반저근과 주변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요실금 치료에 도움을 준다. /김승호 기자



다. 하루 15분간 앓아만 있어도 케겔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코웨이는 테라솔 U를 각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렌탈과 일시불 판매를 모두 진행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테라솔은 집에서도 전문적인 헬스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돋는 코웨이의 새로운 가정용 의료기기 브랜드"라며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테라솔 U를 시작으로 고객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amp;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김범수, 2년 만의 등장… 카카오, 성장궤도 복귀 신호탄 될까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김 센터장, 신입사원과 깜짝 만남  
“AI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 강조  
올해 AI 전략 성과 증명 분기점

사법 리스크로 장기간 경영 전면에서 물러나 있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 대신 미소와 즉석 대화를 택한 이번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위기 국면을 지나 반등을 준비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 캠퍼스를 예고 없이 방문해 그룹 신입사원들과 만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2026년 그룹 신입 공채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김 센터장이 공식적인 임직원 소통 자리에 나선 것은 2023년 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 센터장은 정해진 연설 대신 신입사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셀카 촬영 요청에도 응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전날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그룹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찾았다. /카카오

않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장시간 현장에 머물렀다. 겸찰 소환과 재판 출석 당시의 긴장된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방문에 대해 “건강 회복 과정 중 단순 격려 차원의 깜짝 방문”이라며 경영 복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의 시선은 다소 다르다. 창업자의 직접 등장은 조직 내부에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이

유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공격적인 인수합병 확장으로 ‘문어발식 경영’ 논란에 휘말렸고, 2022년에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전면 장애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2023년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으로 경영진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김 센터장 역시 이 과정에서 구속 기소되며 장기간 경영 전면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싼 이용자 반발까지 겹치며 카카오는 성장 기업에서 ‘논란의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갇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김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겼고, 카카오는 동시에 고강도 경영 쇄신과 사업 구조 재정비에 착수했다. 외형 성장보다는 선택과 집중,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기조 전환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김 센터장이 신입사원들에게 던진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직접 구현해 보라”고 주문했다. 개발 직군이 아니어도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AI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카카오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올해 카카오는 AI 전략의 실효성을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해다. 지난해 카카오톡에 외부 생성형 AI를 연동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중 자체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투자해 온 기술이 실제 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센터장의 등장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카카오가 위기 관리 국면을 지나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내부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카카오 AI 전략이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분기점”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 거버넌스 논란, 신뢰 하락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카카오. 창업자의 조용한 복귀 신호가 조직에 어떤 변화의 파장을 만들지, 시장의 시선이 다시 카카오를 향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경직된 독자성 기준·바꾸는 규칙… 빼걱대는 ‘국가대표 AI’

네이버, 뛰어난 옴니모달 기술력에도 모델 ‘순수혈통’ 미입증에 실격 처리  
학계·업계 “시대착오적 기준” 비판  
폐자부활전 도입에도 기업 참여 거부  
자체 로드맵으로 민간시장서 승부수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뽑겠다며 야심 차게 뛰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재도전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구상은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프롬 스크래치’ 독자성 기준과 현장마다 바뀐 평가 룰이 민간의 신뢰를 스스로 깨어먹었다는 냉소가 나온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뽑겠다며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빼걱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

요 기업들이 잇따라 폐자부활전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프롬 스크래치’라는 경직된 독자성 기준과 오락가락한 평가 룰이 민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냉소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독자성(프롬 스크래치)’이라는 서슬 퍼런 잣대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LG AI 연구원, SK 텔레콤, 업스테이지를 2단계 진출팀으로 확정하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탈락시켰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기술력으로 상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모델의 ‘순수 혈통’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가중치 초기화부터 사전 학습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위 ‘프롬 스크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두고 학계와 업계에

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AI 석학 조경현 뉴욕 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의 핵심 가치는 무(無)에서의 창조가 아닌 통합의 지능에 있다”며,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실격시킨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수는 시험이 응시자의 실제 역량을 측정하기보다 단일 수치를 도출하는 것에 만 급급한 ‘다중 선택형 시험’ 식의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기술적 유연성을 무시한 채 박제된 독자성 기준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뜬금없는 폐자부활전 개최는 정책 신뢰도를 더욱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당초 5개 팀 중 1개 팀만 탈락시키려던 계획을 현장에서 2개 팀 탈락으로 변경하고, 다시 폐자부활전을 통해 1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식의 ‘고무줄 룰’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심판이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미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 팀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합류할 폐자부활전 승자가 들러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기업들이 재도전을 거부하는 이유는 냉정하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얻는 마케팅 효과보다 기술적 자율성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리스크가 활짝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독자성 미달’ 낙인이 찍힌 네이버와 NC AI는 물론,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카카오까지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못 밟았다. 나랏돈에 휘둘리며 정부의 고무줄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체 로드맵에 집중해 민간 시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탈락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주는

명예보다 ‘탈락’이 주는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신흥 강자’로 치켜세운 KT와 모티프테크놀로지의 참여 여부도 안갯속이다. 두 기업은 글로벌 성능 지표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정작 독자 AI 프로젝트 참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는 사업 계획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KT는 경영진 교체 등 내부 이슈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쟁을 통해 1~2개 모델을 선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지 의문”이며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넥슨게임즈, 라이브 서비스·다양한 장르 신작 집중

프로젝트 RX·우치 더 웨이페어러 등 서브컬처, 첫 싱글 플레이 신작 공개  
IP 기반 프로젝트 DX 개발 집중도

넥슨게임즈가 2026년을 기점으로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장르의 신작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8일 넥슨게임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프로젝트 RX와 우치 더 웨이페어러 등 준비 중인 신작을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지난해 블루 아카이브, 서든어택, 퍼스트



‘프로젝트RX’의 이미지. /넥슨게임즈

디션던트 등 주요 라이브 게임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진 이후 이 같은 신작을 공개한 것이다.

올해엔 개발 중인 신작들의 완성도 제고와 제작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개발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RX는 넥슨게임즈 IO본부 RX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C·모바일 기반 서브컬처 게임으로,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고품질 3D 그래픽과 이세계 배경, 생활형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티저 영상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약 11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블루 아카이브 한국 및 글로벌 서비스를 종횡한 차면서 PD가 개발을 지휘하고,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던 유토카미즈 가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다.

로어볼트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우치 더 웨이페어러는 넥슨게임즈가 처음 선보이는 싱글 플레이 게임으로, PC와 콘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한다.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도사 전우치의 모험을 그린 이 작품은 한국적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티저 영상은 공개 이후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개발진은 정체일 음악 감독을 비롯해 국악과 한국 문학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한국적 표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넥슨컴퍼니 대표 IP인 던전 앤파이터를 활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아라드’와 ‘아생의 땅: 듀랑고’ IP 기반의 프로젝트 DX 개발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 층은 올해 신작들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라이브 게임 부문에서는 블루 아카이브의 IP 확장과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지속한다. 지난해 팝업 스토어와 상설 카페 운영, 글로벌 서비스 4주년 오프라인 행사 개최에 이어 2026년에도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 소통을 강화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오천피 앞두고 뭉칫돈 몰린다

코스피 사상 첫 4800 돌파  
투자자 예탁금 92.6조 기록  
신용융자 28.7조 ‘역대 최고’

증권기업 과장인 이모(36)씨는 코스피 4400을 돌파한 지난 5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2300만원어치 샀다. 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그는 지난 16일 코스피가 4800 선을 넘자 이를 모두 팔았다. 9일 만에 수익률은 18%. 이씨는 곧바로 지수 하락률의 두 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2X) ETF로 갈아탔다. 그는 “주자가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락에 베팅했다”며 “직장 동료 중에는 상승장에 ‘다걸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가정 주부인 윤모(41)씨는 지난 16일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에 650만원을 투자했다. 인버스 ETF는 지수가 내리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정개구리 ETF’로 하락장에 대처하는 상품이다. 거꾸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코스피 4840.74에 마감한 16일 서울 종로 우리은행 딜링룸, 코스닥 지수는 954.59에 거래를 마쳤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69.7원)보다 3.9원 오른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1

동학개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이 코스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달리는 말(코스피 추가 상승)에 올라타는 개미들이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은 코스피 200 선물지수 하락률의 2배만큼 수익을 내는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320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 5위다.

개인은 코덱스 인버스 상품도 1330억 원어치 샀다.

상승세가 한풀 꺾여도 안정적인 분배 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도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다. 개인은 ‘KODEX 200타겟워클리커버드콜’ 상품을 1532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상승장에 투자하는 개미도 있다. 국내 증시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역시 2629억원(순매수 9위)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개인은 ‘TIGER 200’ ETF도 1178억 원 순매수했다. TIGER 200 ETF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구성했다. 한국 증시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지수 ETF다. 이 상품은 순자산이 5조원을 웃돈다. 정의현 미래 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방위비 증액이라는 두 가지 죽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앞두고 ‘TIGER 200 ETF’를 통해 반도체, 조선, 방산, 로봇 등 한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승장에서 ETF를 통한 박스권 투자에 나서는 셈이다.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투자자는 지수 상승세를 좇는 레버리지 ETF를 사고, 상단이라고 판단한 개인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식이다.

시장에서 개미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2조 60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92조 원대로 올라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87조 8291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보름여 만에 약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빛투’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일 기준 28조 7456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中 시장 뛰어드는 자산운용사, 현지기업과 전략적 협력

홍콩법인 설립하거나 협업 검토  
반면 성과 못내 법인 정리하기도

중국 자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중국 현지화 전략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운용자산(AUM) 50조원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7곳(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한화·KB·NH아문디) 중 가장 먼저 중국시장에 진출한 곳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홍콩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미래에셋은 홍콩 시장 공략 경험을 발판삼아 현재는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산은 약 500조 원대로 불어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중국 차이나유니버설자산운용 홍콩법인(CUAM HK)과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시



ChatGPT로 생성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이미지.

장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협력의 핵심은 ‘ETF 커넥트 제도’다. ETF 커넥트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가 추진한 제도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된 지정 ETF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홍콩 자산운용사인 CSOP자산운용과 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운용사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가파른 성장과 맞물려 있다.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가 올해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 지수 역시 전년 대비 12% 오른 52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스텐더드 앤드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 전

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중국 상해 현지 법인을, 한화자산운용은 2024년 12월에 중국 펜진에 설립했던 현지 법인을 정리한 바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도약 차원에서 2016년 1000만 달러를 들여 중국 펜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2000년대 초 반부터 기회를 엿보던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당국이 외국자본 단독 법인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허용하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실제 4년

뒤인 2020년 한화자산운용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운용 전문가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하며 중국에서 사모펀드 운용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팬데믹 까지 터지면서 좀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법인 청산에 들어갔다. 신한자산운용도 같은 해 홍콩 법인 자산관리 사업 기능을 본사로 통합하면서 현지 법인이 문을 닫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콤 상생파트너와 동반성장

‘Together+’ 통해 동행가치 실천

코스콤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동반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콤은 통합 상생 프로그램 ‘코스콤 Together+’를 통해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 Together+’는 사업파트너와 지원파트너는 물론 지역사회 취약계층 까지 모두 ‘상생파트너’로 정의하고, 단순한 협력이나 지원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다.

코스콤은 도급업체 및 솔루션 제공업체, 서울·부산 지역 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파트너와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시설관리·보안·환경 미화·식당·어린이집 등 지원파트너와도 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명절 선물 제공 등 실질적인 상생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Together+ 사업파트너 동행 미팅’을 개최했다. 연 1회 진행되는 본 행사는 업무 수행 기간, 무장애 실천 여부,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된 사업파트너를 초청해 오찬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파트너 감사데이’ 개최, 동계 근무복 및 외부 근무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지원금 전달식, 봉사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꿈나무 장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CEO Letter’ 발행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 “상장입박 미끼”… 비상장주 IPO 사기 경고

### 금감원 Q&A

절차 진행 중이면 공시 조회 가능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신다면, 우선 투자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해셔야 합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입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

과 허위 상장 정보를 내세워 투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상장이 실패할 경우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

를 권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공시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IPO 현황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융

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무 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이거나과장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

# 산업부·코트라, '수출스타 500 사업' 본격 추진

매년 중소·중견기업 100개 선정  
최대 8억 지원…수출 중추기업 육성  
내달 11일까지 사업참가 신청 접수

정부가 향후 5년간 '수출스타' 기업 5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연간 수출 1000만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연간 최대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출 1000만~5000만달러 수준의 수출 중추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꺼내든 이유는 수출 중추기업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수출 1000만~5000만달러 기업 수는 2021년 2749개에서 지난해 2586개로 줄었다. 수출 대기업과 소수 강소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수출 1 조달러 시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모빌리티, 기계·부품,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과 AI·디지털,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 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현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경성 코트라 사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트라

-뷰티·식품·유통·패션·바이오·의료 등 소비재 분야 9개 업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코트라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년 6~8억원 사업비의 50~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은 국고 보조율 70%, 중견기업은 50%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분의 절반 까지는 해외 마케팅 인건비, 전시회 비용 등 실비 투입으로 인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 코트라를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업별 전담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총 15명의 전담 멘토가 해외 마케팅, 무역보험·수출보증, 수출 목적형 R&D, 해외 인증 취득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무보는 무역보험과 수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해외인증 취득 서비스 등을 각

각 제공한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이들 5개 수출지원기관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수출 5 강,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수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올해 수출기업 10만개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청년인턴 채용

121명 선발… '정책제안서' 심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2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턴 선발을 통해 농업행정 분야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장려한다.

응시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국민이다.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어학성적 등 정량적 우대요건(이른 바 '스펙')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제안서'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채용공고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식품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후부, 녹색정책금융 이차 보전규모 확대

## 전년比 신규대출 지원 2배 확대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 뒷받침

올해 녹색정책금융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이차(利差)보전 규모가 작년 대비 2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 사업' 신규대출 지원 이차 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조5500억 원과 비교해 약 2 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이자 부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

제활동·국제감축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

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회사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내 감축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

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일평균 약 3만6000명의 귀성객 및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 사고 예방에 나선다. 위해요소 식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3~18일) 전까지 조치해 연휴기간 안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 축분 고체연료 산업 본격 육성

한국남부발전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발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동발전 7·8호기를 '축분 연료 혼소발전 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6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운데)과 함께 하동 7·8호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부발전

비'로 선정했다. 해당 설비는 2026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저장조·분쇄기·이송 설비 등 전 공정을 밀폐형 시스템으로 구축해 비산먼지와 악취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섞어 태우는 혼소발전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동을 비롯해 삼척 등 주요 권역별로 축분 전소 발전소 운영도 검토한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전국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농가에는 분뇨 처리의 고민을 덜어주고, 발전사에는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최고의 상생 모델"이라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페이스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진청, AI 리더십 교육

'AI 시대 결정을 이끄는 리더' 주제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 시대 결정을 이끄는 리더'란 주제로 AI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19일 실시되는 이 교육에는 청장을 비롯해 본청 및 소속기관 고위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공공부문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 기획·조정과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의 AI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AI 혁신을 이끌 고위공무원의 결정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고위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업무 품질과 속도를 함께 높이는 도구로 이해하고, 부서 단위 실행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근로복지공단

### '푸른씨앗' 1.5조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출범 3년여 만에 적립금 1조5000억원을 넘어서졌다.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의 적립금은 1조 5406억원으로 출범 이후 매년 70~80% 이상 성장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현재 전국 3만6432개 사업장의 근로자 16만6357명이 가입했다. 2024년 말 대비 사업장은 56.8%, 근로자는 53.3% 늘었다.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 위원회가 공동 관리해 안정성을 높인 점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채권 등 안전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보수적 운용 기조 속에서도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연도별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광해광업공단

### 광산 안전관리 134억 투입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올해 국내 광산 안전 확보를 위해 134억원을 투입한다. KOMIR는 산업통상부승인을 받아 국고보조사업 예산 134억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노후 광산의 안전관리시설과 장비 확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긴급대피시설 구축과 낙후된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개별광산 안전진단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광산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가행(운영) 중인 광산 가운데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석탄·일반광산이다. 간내통신, 긴급대피시설, 낙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0%를 국고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건강창업의 모든 것!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햄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주)햇터  
(주)햇터방송\_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_햇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전국 최초 경북도,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제도 도입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팔 걷어  
차부품기업 취업매칭 행사 진행  
지역 정착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제도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의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실행해 옮긴 사례로, 단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정착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신설됐으며,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를 발급받은 비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충북과 충남, 광주와 함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벤트 소재 기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별 수요 조사를 거쳐 맞춤형 매

칭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만성적 인 구인난을 겪어온 자동차부품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외국인 인력과 기업 간 취업 매칭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과 추진 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과 기술자 직무 교육 ▲기업 관계자 질의응답 등의 순

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현장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자동차부품 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이번 성공적인 매칭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울산시, 주택보급율 107.6% 기록

전국 평균대비 최대 6.7%p 높아  
지역거주자 주택 공급여건 양호

울산의 주택 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107.6%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100%를 초과하며 6대 광역시 중 최고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에서 최대 6.7%P 높은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와 자재비·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

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세대가 연평균 5800세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울산은 전년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P 줄었다.

현재 울산의 총 주택은 49만 7617호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34만 739호로 전체 69%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은 현재 추진하는 건설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 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와 협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영암군, 남풍리 시외버스터미널 매입

### 복합문화공간 활용 계획

농촌지역 소규모 시외버스터미널이 교통여건 변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터미널을 매입해 터미널 기능은 물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암읍 남풍리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했다.

영암군은 매입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해 단순 교통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층은 버스터미널 기능과 함께 시니어카페, 신활력플러스 시설 등 중간지원조직을 배치하고, 2층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



영암 시외버스터미널

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영암의 관문이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쇠퇴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상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23.4억 달성

지난해 12.7억… 경남도 내 1위

랜드를 전국에 알렸다.

향우들의 꾸준한 기부도 성과에 기여했다. 김종완 진주향우회장이 500만원을 전달했고, 박선용 통영 청플란트치과 원장이 300만원, 김영복 마산향우회장이 200만원, 김옥찬 대경제신문 지사장이 1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하동군과 사천시, 고성군 공무직 직원 간 상호 기부도 이뤄졌으며 지난 13일에는 재밀양하동향우회가 정기 회의에서 100만원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출향인과 모든 기부자들 덕분에 눈에 띠는 성과를 거뒀다”며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모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영양군, ‘꽁꽁겨울축제’ 경쟁력 강화

영양군의 겨울을 대표하는 ‘영양 꽁꽁겨울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하며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명품 계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겨울철 관광 비수기였던 영양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축제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얼음낚시, 얼음썰매 타기, 얼음열차 등 겨울 고유의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장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군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장에는 안전 펜스 설치, 실시간 빙상장 상태 관리, 철저한 제설 작업 및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또한, 축제장 내 운영되는 다양한 먹거리 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영양의 따뜻한 인심이 담긴 음식을 즐기며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제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과 편의를 강화해, 본 축제를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넘어 전국적인 겨울 관광 콘텐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지역 이모저모

### 대구시, 호찌민 교류협력 확대

대구시는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 시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6일 응웬 반 드억(Nguyen Van Duoc)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과학기술·인적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이날 면담에서 경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업교류 활성화,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구시는 ICT, 첨단의료, 물 산업 등 대구의 강점을 중심으로 호찌민시와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김준한 기자

### 포항시

#### 신규 공무원 56명 임용식 개최

포항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장을 수여받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성실히 공직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신규 공무원은 모두 56명으로, 직렬 별로는 행정 24명, 세무 4명, 사회복지 3명, 공업 5명, 농업 2명, 녹지 2명, 해양수산 5명, 보건 1명, 의료기술 2명, 환경 1명, 시설 7명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울주군

####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

울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이로써 총 33개 항목을 보장하게 됐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진단비 최대 20만원, 입원 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금액도 기존보다 1000만원씩 늘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한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 전북경진원

#### “경영전략 컨설팅 받으세요”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전반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진원은 기업별 이로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전문 컨설팅사를 1대1로 매칭,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김종일 기자 kjj7219@

식품산업협회, '韓-中 식품안전협력' 환영

## "K-푸드 식품 안전관리 신뢰 향상"

中 등록절차 3개월 → 10일 단축  
중견·중소 식품기업 진출 개선  
자연산 수산물 수출도 가능해져

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중국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 정보 교환을 비롯해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 현지 실사 협조, 수출 식품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중국 측 등록 절차가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

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등록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행정 지연으로 발생하던 비용과 매출 손실을 연간 약 37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등록을 관리함에 따라 중국 당국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 단계에서의 보완 요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특히 자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 평가된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기존 206개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됐다. 위생 평가 등의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산업계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는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식품안전협력 위원회 과정에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들이 협회를 찾아 수출 기업들과 직접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했고 협회는 현장의 요구를 정부 간 협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협회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식약처와 공동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푸드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수출 안정성을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흑백요리사" 세프 음식 집에서 즐기세요"

CJ제일제당, 출연 세프 대규모 협업  
자사 대표브랜드 등에 레시피 접목  
우동, 국물, 중화요리, 소스 등 예정

CJ제일제당이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 세프들과 손잡고 대규모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콘텐츠 연계 K-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CJ제일제당은 흑백요리사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권 쇼 1위에 오른 흑백요리사의 흥행력을 기반으로 '비비고'와 '고메' 등 자사 대표 브랜드에 세프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접목해 소비자 경험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업 제품은 총 33종으로 시즌2 출연 세프인 최강록·윤나라·최유강 세프와 시즌1 우승자인 권성준 세프가 참여했다. 특히 시즌2 출연 세프들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메뉴 제안과 레시피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먼저 시즌2 우승자인 최강록 세프와는 '고메 우동' 5종(미역·김치·카레우동 등)을 출시한다. 가쓰오를 열수 추출 공정으로 우려낸 깊은 육수와 기존 대비 약 20% 두꺼운 면발을 적용해 차별화를



CJ제일제당 흑백요리사 세프 컬렉션.

/CJ제일제당

꾀했다. 이와 함께 백설 '10분쿡 조림소스' 2종도 선보이며 세프의 조리 노하우를 가정간편식(HMR)에 구현했다.

윤나라 세프는 비비고 국물요리와 김치, 떡볶이, 햇반컵반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경연에서 선보였던 황태국과 애호박찌개는 비비고 국물요리로 재해석됐으며, 묵은지침치덮밥과 꽈리고추돼지고기덮밥 등은 햇반컵반으로 출시된다.

최유강 세프와는 고메 중화요리 라인업을 확대했다. 짜장·짬뽕·탕수육·우린기 등 고메 중화요리 4종과 함께 햇반컵반 중식 2종, 고메 마라탕면을 통해 정통 중식 메뉴를 간편식 형태로 구현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3월 권성준 세프와 최강록 세프가 참여한 소스 신제품 7

종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식 세프 IP를 활용한 소스·HMR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흑백요리사2에 '비비고' 팬트리를 지원하며 국내 식품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스폰서 파트너로 참여했다. 장류와 조미료, 햇반, 만두 등 주요 제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청자에게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 비비고의 인지도를 높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로 주목받은 세프들의 요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협업을 통해 K-푸드의 확장성과 미식 경험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오 크림을 풍성하게 채웠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와 기분에 따라 소비하는 '필코 노미'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 검색어 순위에서 '생초코파이'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전체 검색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제육볶음 ▲간장 양념 삼겹살 ▲고추장 양념 삼겹살 등 3종이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인분 분량인 200g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외식 물가 대비 합리적인 4900원으로 책정해 2026년 연중 고정 가로 운영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세븐일레븐, 두바이 초콜릿 열풍 이어간다

'두바이식 카다이프 뚱카롱' 선봬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카다이프 쫀득 볼'의 흥행에 힘입어 새로운 두바이식 디저트인 '두바이식 카다이프 뚱카롱'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 1일 선보인 '카다이프 쫀득볼'이 2주 만에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250% 까지 끌어올리며 '두바이 초콜릿' 관련 상품의 여전한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두바이식 카다이프 뚱카롱(3200원)'은 전분을 섞지 않은 100% 아몬드 가루로 만든 꼬리를 사용해 특유의 쫀득함을 살렸으며, 그 사이에 바삭한 카다이프면과 꾸덕한 피스타

CU, 휴지·햇반 등 생필품 최대 75% 할인

오는 21일부터 '민생 지원 할인 행사'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주요 생필품을 최대 75% 할인하는 '민생 지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환율 속에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CU는 평소 고객 수요가 높은 생활밀착형 상품 10종을 엄선해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깨끗한나라 촉촉한 감 시그니처(30롤)'는 정가 대비 69% 저렴한 1만 900원에, '동원 먹는 샘물(500ml, 20입)'은 50% 할인된 1만 원에 판매한다. 또한 '햇반(210g, 12입)'은 1만 4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제로 등 인기 음료 5종에 대해서는 1+1 행사를 적용한다.

여기에 제휴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20%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주류를 제외한 행사 상품을 BC카드, N



CU가 민생 지원 행사를 통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린다.

/CU

H농협카드, 네이버페이, 토크페이 등으로 결제 시 기존 할인가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롤티슈를 해당 수단으로 결제하면 최대 75% 할인율이 적용되어 롤당 약 291원꼴로 구매가 가능하다. 햇반 역시 온라인 최저가 수준인 1만 192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CU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기획 상품으로 '990원 햇반' 신제품 3종(청양 고추, 치즈, 닭가슴살)을 출시하고 2월까지 한정 판매하며 가성비 라인업을 강화했다.

/손종욱 기자

## 신세계百, 대규모 웨딩 프로모션 진행

비아신세계 '허니문 큐레이션' 행사  
'더 에브리데이 럭셔리'로 예물 할인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19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세계의 고품격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는 다음 달 8일까지 '허니문 큐레이션' 행사를 연다. 특히 이달 말 강남점에 오프라인 상담 창구인 '트래블 컨시어지'를 새롭게 오픈해 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은 두 번째 거점을 마련했다.

예비부부들은 트래블 컨시어지에서 동유럽 프리미엄 투어, 지중해 리조트 투어 컬렉션 등 차별화된 허니문 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및 계약 고객에게

는 구매 금액대별 최대 60만 원 할인, 현지 스냅 촬영, 객실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허니문 상품 구매 금액은 백화점 VIP 실적으로 100% 인정된다.

예물 장만을 위한 '더 에브리데이 럭셔리' 행사도 이달 25일까지 이어진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워치·주얼리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해밀턴과 포멜라토 등 주요 브랜드는 구매 고객에게 파우치, 호텔 바우처 등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이성환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예물부터 허니문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GS25, 혼밥족 겨냥 소포장 양념육 선봬

제육볶음, 양념 삼겹살 4900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추세에 발맞춰 4900원짜리 소포장 양념육 3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제육볶음 ▲간장 양념 삼겹살 ▲고추장 양념 삼겹살 등 3종이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인분 분량인 200g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외식 물가 대비 합리적인 4900원으로 책정해 2026년 연중 고정 가로 운영한다.

GS25는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조리와 취식이 간편하고 잔반 걱정이 없는 소용량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국 4000여 개의 장보기 특화 매장과 신선 강화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출시를 기념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해당 양념육



고객이 4900원 한끼 양념육 상품을 살펴보는 모습.

/GS25

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친환경 소용량 모둠쌈'을 무료로 증정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고기와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GS25는 매월 하반기 진행하는 '프레시위크'를 통해 장보기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이달 말까지 팔기, 사과, 계란 등 신선식품 40여 종을 초특가에 선보이며, 고구마와 연어 스테이크 등은 1+1 행사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 트럼프發 의약품 관세 촉각… K-바이오 수출 전략 시험대

경주 APEC서 일부 관세조건 확보  
제네릭 면제·바이오시밀러 미지수  
정확한 품목 분류, 폭넓은 점검 필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 품목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해 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도 무역환경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무역환경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품목관세 여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품목관세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제미나이 생상 이미지.

한미 간 의약품 관련 관세 협상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됐다.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유지, 최혜국 대우 등의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다만 국내 핵심 수출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해 10월부터 미국 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

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착공한 기업은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미국 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화이자를 시작으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존슨앤존슨 등은 최혜국 약가 적용, 미국 내 투자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대응책 마련한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등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발맞춘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 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CMO)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품목 분류기준인 'HTS코드'에 따라 관세 부과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 점검도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에 따른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모두 HTS코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특히 성분, 제형, 포장 방식 등도 세분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속성분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 부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오가노이드-아론티어, AI결합 신약개발 맞손

AI 기반 비임상 평가 체계 강화  
개발 과정의 실패 가능성 낮춰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가노이드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임상 평가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론티어와의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 고속 약물 반응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예측 중심 비임상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사람 기반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과정 전반의 실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산업적 해법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예측 독성학 이니셔티브(PTI)와 글로벌 차세대 독성 평가 기술(NAM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비임상 단계에서 단순히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독성과 약물 반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는 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종만 대표이사(오른쪽)가 아론티어 고준수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논의를 넘어, 신약 개발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 유래 오가노이드 데이터와 AI 예측 기술의 결합은 차세대 비임상 평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조직과 높은 유사성을 갖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의 효능과 독성, 반응 차이를 고속·정량적으로 분석해 왔다. 다수의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과 실제 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비임상 데이터를 실제 개발 전략과 파이프라인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공정 표준화 경험은,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자산이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론티어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약물-타깃 상호작용, 약효 및 독성 예측 영역에서 실제 산업 적용 경험을 축적해 온 기업이다. 방대한 생물학·화학 데이터를 학습해, 후보물질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상용화해 왔으며, 이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이번 협력에서 아론티어는 오가노이드 기반 실험 데이터를 AI로 해석·확장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예측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사의 경험을 활용하면 임상 이전 단계에서 실패 위험을 낮추고, 명확한 기준으로 후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HLB제넥스, 김도연·김의중 대표 지분 확대

기업가치 높이고 책임 경영 강화

HLB제넥스가 김도연·김의중 각자 대표 지분 확대를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도연 HLB제넥스 각자 대표는 지난 12일 장내에서 1만38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2만3090주로 늘렸다. 김의중 HLB제넥스 각자 대표 역시 1만

100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을 109만 4506주로 확대했다.

김도연·김의중 대표는 최대주주 HLB의 특수관계자이며 이번 장내 매수로 HLB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915만6691주(31.39%)로 집계됐다.

HLB제넥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으로 최근 헤소사업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실적

에서 누적 매출 309억원, 누적 영업이익 1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HLB제넥스에 따르면, 유당 분해 효소 '락타아제', 산업용 효소 '카탈리아제' 등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또 'UDCAase'를 자체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UDCAase는 간기능 개선제 핵심 원료로 쓰이는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다.

/이청하 기자

## LG화학, '엑스파렐' 도입…亞 독점판매

내년 국내 출시 목표

LG화학은 미국 바이오 기업 파시라바이오사이언스와 비마약성 수술용 국소마취제 '엑스파렐'의 아시아지역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스파렐은 장기지속형 약물로, 기존 국소마취제보다 긴 최대 96시간 통증 완화 효과를 갖췄다. 201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20년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누적 1500만 명 이상 환자들이 수술 후 엑스파렐을 사용해 통증을 치료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허가된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다. LG화학은 향후 국내에서 엑스파렐이 반복적 통증 치료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고 중독 등 부작용이 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2027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 투여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 소염진통제 및 위산분비억제제 복합제 '비모보' 등 염증과 통증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수술용 항균제 '타우로키트주', '엑스파렐' 등 수술 전용 제품까지 근골격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프랭크리파시라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수십 년간 아시아지역 환자에게 통증 솔루션을 제공해 온 LG화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파렐' 활용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LG화학 황인철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차별적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한미약품, 유소아 해열진통제 제품군 강화

써스펜·맥시부펜 시리즈 등 구축

한미약품이 유소아 해열진통제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으로 유소아 감기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처방한 '써스펜' 시리즈, 맥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 시리즈 등 서로 다른 계열의 해열진통제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써스펜 시리즈 첫 번째 제품은 1976년 공개한 '써스펜좌약'이며 1991년에는 '복합써스펜좌약'을 발매했다. 특히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 해열용 좌

  
한미약품의 어린이 전용 감기약. /한미약품

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합한 상비약이다.

복합써스펜좌약은 지난해 6월 생산 중단 위기를 겪었지만 한미약품 경영 지침에 따라 공급이 재개됐다. 당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수익보다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써스펜키즈시럽'도 출시했다. 막대형 파우치로 개별 포장해 위생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대학로 NO.1 여성전용 화이트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 헝키 Show

2025.11.28 ~ OPEN | 대학로 스타스테이지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공연  
#겨울엔 헝키쇼에서 뜨겁게!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여자들만의 #연말파티

할인받고  
헝키쇼 보러가기

NOL ticket 평점 10점 공연! 재관람율 100%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못할 기억을 남겨드렸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랜찮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queeno\*\*\*님

★★★★★

스트레스 뺏!! 도파민 엔돌핀 뽑쁨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해보세요!

# 영업비밀에서 '비밀성'의 의미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현대사회에서 '영업비밀'은 회사경영의 핵심적 전략요소다. 최근 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 등의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가 영업비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막연하게 '회사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영업상의 정보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영업비밀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은 다른 말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비밀관리성)'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비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성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영업비밀의 개념상 당연한 요건일지도 모르는데, 기업 스스로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의 요건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완화돼 왔다. 당초 부정 경쟁방지법은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 부분마저 삭제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만 했다면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이 애초에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스타트업 등이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이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들(과거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경우의 판례들을 포함)을 보면 ▲보안관리규정 등의 존재 ▲출입카드 등 통제장치 ▲금지구역, 대외비 등의 표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존재 여부 ▲비밀유지학약서의 작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단식투쟁



기자 수첩

서예진  
(정치부)

투쟁 현장에서 '단식'은 최후의 방법으로 쓰인다. 약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달지 않을 때, 목소리가 들려도 강자들이 듣지 않을 때다. 단식은 제도와 권력,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이다. 그래서 단식투쟁을 하는 이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래 전 단식투쟁을 하던 세월호 유족 앞에서 일명 '폭식'을 한 이들이 비판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모든 단식을 같은 공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까. 국회, 그리고 상당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아당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점유하는 정치 세력이 단식을 선택한다면 말이다.

야당이 뭔가를 얻고 싶다면 여당에게 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은 협상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화를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당대표가 단식에 나섰다. 이번엔 이유가 '독재 타도'거나 '국정조사', '야당과의 대화 촉구'가 아니다. '통일교-공천현금 특검법'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질 시간은 사라진다. 논리적인 협상은 사라지고, '누가 더 고통받고 있나'라는 문제만 부각된다.

흔히 보는 투쟁 현장에서의 단식은 '출구 전략'이 없다. 약자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라서다. 약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단식은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단식'은 출구 전략을 세워놓는다. 이번 단식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여권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응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

다. 그리고 '의료진 권고'를 통해 단식을 멈출 수도 있다. 이것만 봐도 통상의 '단식투쟁'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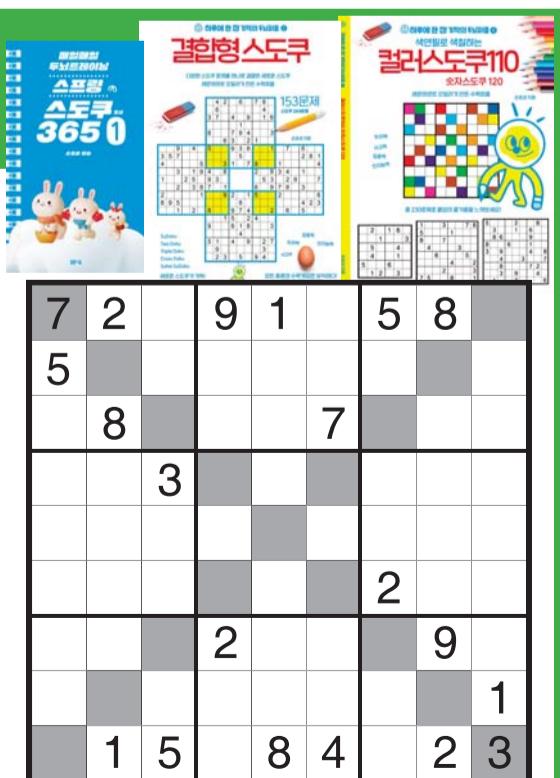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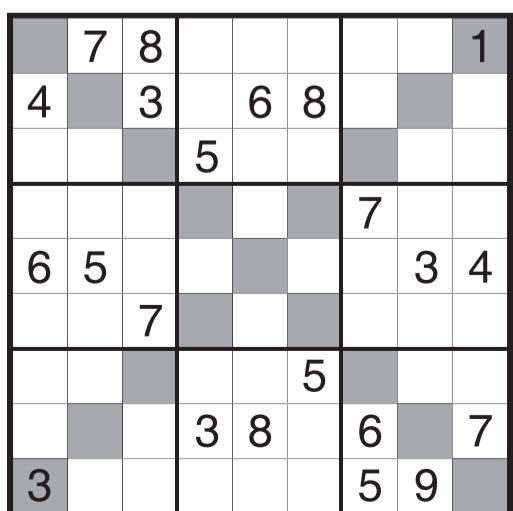
문제는 이런 형태의 단식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통일교-공천현금 특검법'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질 시간은 사라진다. 논리적인 협상은 사라지고, '누가 더 고통받고 있나'라는 문제만 부각된다.

단식은 약자의 수단일 때만 의미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단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여러 카드 중 하나로 전락한다. 단식이라는 투쟁 행위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단식 투쟁을 보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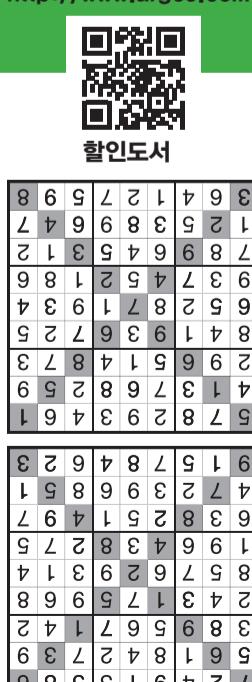
/sy@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宫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민아이드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 오늘의 운세

1월 19일 (음 12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황제 운으로 구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날. 48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60년생 불평불만으로 애정에 금이 간다. 72년생 연인 사이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려 한다. 84년생 불안과 초조하니 건강 검사해보자.



37년생 소형아파트를 소자본 투자로 이득이 생긴다. 49년생 다음 주에 이사 수가 온다. 61년생 어렵던 금전 문제가 풀림. 73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밥값에 인색하지 마라. 8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3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땅 것 같으나 자중할 때. 50년생 멀리서 반기운 친구가 찾아온다. 62년생 아직보다는 부족한 공부를 하라. 74년생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6년생 쉽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39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51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63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75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데. 8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40년생 성정껏 기도하면 애를 면한다. 52년생 아침부터 귀한 별이 찾아든다. 6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6년생 투자는 낭패하니 한발 양보해서 저축하는 것으로. 88년생 동남방에서 귀인이 돋고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1년생 애정문제의 시끄러움이 예상되니 삼각관계 조심하라. 53년생 봄바람이 불어 오니 마음이 상승생상. 65년생 오후에 에너지를 축적. 77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현재를 소중히. 89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42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54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6년생 새로운 계획이 오늘부터 한 단계 발전을 이룬다. 78년생 아침부터 만사형통하는 일진. 90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3년생 현명한 아랫사람이 밭쳐주니 손발이 척척. 55년생 영뚱한 자출이 발생하나 투자한 것에서는 이득. 67년생 화합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79년생 열색을 자꾸 잊어버린다. 91년생 아직 때가 있으니 사랑도 우정도 부담스럽다.



44년생 금전의 자출이 많아지니 주머니에 열쇠를. 56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직장도 평안. 68년생 동쪽만 피하고 움직이며 기쁜 일. 80년생 아침에 까치가 울고 직장에서는 경사가 생긴다. 92년생 시기 질투는 이별 수를 초래하니 참도록 해야.



45년생 지나치게 자존심 내세우다 편집만. 57년생 디워로 인해 작은 일에 짜증 나니 주의. 69년생 바쁘게 다니면서 계획한 일 완성하는 날. 81년생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는 힘만 빼진다. 93년생 일의 선택이 뒤바뀌는 시기이니 침착하게.



46년생 에디슨처럼 확기적인 아이디어 떠오른다. 58년생 일자리는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서 찾자. 70년생 날씨 맷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으라. 82년생 돈을 사랑으로 대하보라. 94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4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9년생 운전조심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거늘. 71년생 업무적으로나 따라오려면 다들 멀었다. 83년생 운세가 대길하여 범사가 이루어진다. 95년생 정식이 아닌 순진하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 김상회의四季

### 식신의 복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이 있듯이 오복에는 장수와 재물복 건강복 등이 포함되지만, 식복食福은 두루두루 통하는 복이다.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세상을 사는 즐거움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음식솜씨 좋은 여자는 소박도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다. 그래서인지 사주 일간에 대한 월지의 격을 볼 때 식신격인 여자는 음식솜씨가 좋다. 대중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도 손맛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식신격은 남편들과 사이가 편안함을 본다. 혹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없다 할 순 없어도 이혼으로 가는 일을 거의 보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공영방송은 물론 케이블방송에서 조차 유명 쇼프가 출연하여 이런저런 음식 조리법을 시연하기도 하고 요리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곤 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주에서 食神은 내가 生하는 五行이다. 食神은 음식과 언변의 神으로 재財를 생하며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길신인데, 희신과 용신으로 작용할 경우 대체로 익식주가 풍부하고 복록과 재물이 윤택하다. 신체적으로는 살이 좀 찐 경우로서 풍만하고 후덕해 보이는 외모의 특징을 갖는다. 성격도 명랑하고 별걱정이 없어 보이고 재財까지 공존하면 요식업이나 식품사업을 통해 부와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많고 음식솜씨도 뛰어난 것은 전술한 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식신의 기운이 과다하면 당주의 기운을 설기 시켜 몸이 허약하고, 식복조차 없는 곤궁함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가무와 쾌락에 빠지기도 하므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본다.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더 문제가 되니 많이 먹으면 위와 장이 탈이 나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적당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8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3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서울시, 전기차 2.2만대 보급… 승용차 보조금 최대 745만원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 혜택  
차상위·청년에 국비지원 20% 추가  
증·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 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만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등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 속도, 주행 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과 자율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기차 도입을 통한 환경보호 실현을 표현한 이미지.

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

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해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대해 택시 전

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 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

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전기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 차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만 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sub>2</sub>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삼성·SK 계약학과 정시지원 늘고, 의약학계열은 줄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전년比 38.7%↑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24.7%↓

상위권 자연계 ‘특수 지원분야’ 인식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의약학계열 선호가 꺾이며 지원이 줄어든 반면, 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의 ‘취업 연계’ 선택은 더 뚜렷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40%가까이 늘었다.

18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대기업 계약학과 전체 지원자는 2478명으로 전년 1787명 대비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24.7% 감소해 대비를 이뤘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

약을 맺고 운영하는 선발 방식으로, 최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학과 신설과 모집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적 최상위권에서도 계약학과를 하나의 ‘특수 지원 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 전체 지원자수는 1290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지원자수는 320명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별 경쟁률은 ▲삼성전자 13.44대1 ▲SK하이닉스 9.14

대1 ▲삼성SDI 46.17대1 ▲LG유플러스 8.75대1 ▲LG디스플레이 7.00대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5.55대1 ▲현대자동차 4.71대1 등이다.

삼성전자 연계 계약학과의 경쟁률을 보면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쏠림이 두드러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반도체공학 89.00대1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공학 59.20대1 ▲광주과학기술원(GIST) 반도체공학 50.20대1을 기록했다. 일반대학에서는 ▲고려대 차세대통신 6.70대1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 6.25대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 5.84대1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는 ▲한양대 반도체공학 11.80대1 ▲서강대 시스

템반도체공학 9.00대1 ▲고려대 반도체 공학 7.47대1 등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에는 신설 학과에도 지원이 집중됐다. 삼성SDI 연계 성균관대 배터리학과는 2026학년도 신설학과로 경쟁률 46.17대1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감소에 대해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즉 2026학년도 급증은 이전 상승 흐름이 다시 강화된 결과로 읽힌다는 것이다.

정시 선발 인원 역시 ▲2022학년도 78명 ▲2023학년도 140명 ▲2024학년도 178명 ▲2025학년도 183명 ▲2026학년도 194명으로 매년 늘었다.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 감소가 나타난

배경은 선호도 자체의 하락보다는 선발 구조 변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의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이 5명 감소한 점을,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2026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수능 100%에서 수능 90%·내신 10%로 변경돼 내신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원자 감소의 요인으로 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기업 계약학과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대학들이 대기업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향후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에게 별도의 특수 지원 분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운영 대학들의 유사 분야에서는 전체 지원자가 증가하면서도 대학별로는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신설학과 개설 시 특정 학과로 지원이 몰리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용인FC, 프로축구연맹 프로리그 가입 승인

2026시즌 K리그2 진출 최종 확정

용인시 ‘용인FC’의 K리그2 진출이 최종 확정됐다.

용인FC(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 승인을 받으며, 2026시즌 K리그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 김해FC 2008, 파주프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해 총 17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용인FC는 지난해 8월 프로리그 가입 조건부 승인 이후 홈경기장 시설 개선, 사무국 조직, 유소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등 프로구단으로서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갖춰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단기간 창단한 구단이라는 한계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모델

을 구축했다.

특히 구단은 사무국 조직 역량 강화와 선수단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기존 조직 운영에 특화된 인력에 전문성을 갖춘 프린트 인력을 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단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최윤겸 감독을 선임하며 행정·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리더십 체계를 완성했다. 여기에 유럽파 출신 전 국가대표 석현준을 비롯해 국가 대표 경험이 풍부한 김민우, 신진호, 임채민, 최영준 등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팀의 중심을 빼르게 구축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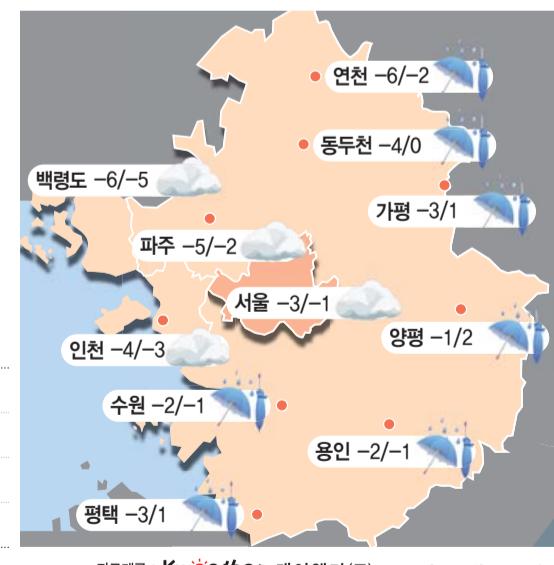
## 1월 19일(월) 날씨

1월 19일(월) 음력: 12월 1일

수도권 날씨

-3 ~ -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메트로 한줄뉴스

▲ 日여야, 조기 총선 앞두고 대비 서둘러…식료품 감세 공약 부상  
▲ 인도, 프랑스 전투기 114대 추가 구매…공동 생산 추진

/사진 뉴시스

▲ 美합정 2척 대만해협 통과에 中 “추적·감시… 고도 경계 태세”

▲ 中, ‘ICE 시민 총격’ 美미네소타 자국민에 주의 촉구…“신분증 소지”

▲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자신 사진 올리며 “관세 왕”

▲ 이스라엘, 美가자 집행위 구성에 반대 목소리…“이 정책에 반해”



트럼프發  
의약품 관세 촉각  
수출전략 시험대  
L2

삼성전자  
고객만족도 최상위  
CS달인 선정

L4



## “폐기물 처리, 선택 아닌 의무”… 열분해로 순환경 경제 길 열어



에코크레이션  
전 범근 대표

“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다. 이 기술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무조건 필요하다.”

전 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의 미래를 이렇게 정의 했다. 전 대표가 이끄는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 대체 원료로서 기능하는 ‘열분해유’를 생산한다. 2010년 설립 이후 약 17년간 한 길만 걸어온 결과, 국내 유일의 촉매 기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가진 ‘순환경’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발전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전 대표가 열분해 기술에 주목한 계기는 약 22년 전 마주한 환경 문제였다. 우연한 기회로 환경 테마의 방송 활동에 동행했던 그는 폐비닐과 쓰레기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은, 아니 더욱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큰 문제 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당시 그는 “미래에 ‘환경 전쟁’이 올 수밖에 없겠다”고 실감했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됐다.

◆ 규제의 벽 넘은 에코크레이션의 독보적 기술, 시장이 닦하고 있다

에코크레이션의 경쟁력은 촉매 기반 저온 열분해 기술, 그리고 고품질의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력에 있다. 경쟁사 대비 염소, 질소, 황 등의 불순물 함량이 현저히 낮아 석유 경제 공정 투입 시 설비 부식이나 죽매 피복, 대기 오염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종 수요처 입장에서는 공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비용 증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자체 개발한 촉매와 공정 설계를 통해 고순도의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코킹(COKING) 방지제, 겸발생 억제제, 왁스 분해 촉매 등 독자 기술을 적용해 설비의 연속 가동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며, 경쟁사 대비 높은 열분해유 판매 가격을 확보하는 기반 이 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정유사들도 에코크레이션 자회사를 통해 열분해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글로벌 정유사인 S사에 국내 최초로 열분해유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해외 정유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에코크레이션은 이제 국내를



전 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가 인천 서구 청라동 에코크레이션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7년간 폐플라스틱 열분해 ‘한 길’  
국내 유일 촉매기반 독자기술 보유

고품질 열분해유 생산… 신뢰 확보

품질·기술력으로 상업화 한계 돌파  
국내 정유사 공급, 글로벌 수출도  
제도보다 앞선 기술로 시장 개척

AI 자동화 도입… 효율·안정성↑  
글로벌 시장 최적화된 솔루션 구축

폐기물 재활용 기술자 ‘자부심’  
재활용 신기술로 사회에 이바지



인천 서구 청라동 에코크레이션.



전 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왼쪽)가 연구진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실험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넘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쉬운 시작은 아니었다. 사업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정부의 움직임보다 한 발 앞섰던 기술력은 시장의 난제 해결사의 역할을 맡게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폐기물 관리법과 석유사업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체 물질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가 소각 중심 처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환경부는 2022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8월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공정 허용 원료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추가했다.

전 대표는 “시장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 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기관에서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열분해유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시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 함께 있었다”며 “환경부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당시에도 3년 기한의 과제를 2년 안에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차별화된 기술로는 ‘안전성’을 꼽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 기계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분해 과정은 위험한 공정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특히 장치 개발 등을 통해 안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밸브도 구간마다 설치해

관리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도 정제된 상태로만 나가도록 처리하고 있다.

◆ 기술로 증명한 성장… 코스닥 시장 문 두드린다

에코크레이션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진입이다.

지난해 1분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전 대표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게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혼자서 너무 외롭게 끌고 왔다”며 “이제는 일부 기업들의 투자도 받고 있고, 4세대 버전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 회사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에코크레이션의 핵심 투자자 중 한 곳으로는 국내 대기업 집단인 S그룹이 꼽힌다. S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S사는 지난 2021년 68억원을 투자해 에코크레이션 지분 25%를 확보했다.

그는 폐플라스틱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강조한다. 비닐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아무리 줄여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 문제인 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주력하기 위한 판로를 개척 중이다.

에코크레이션의 해외 진출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는 실험 장비 개념의 기계를 보내 기동력을 입증하면서 계약이 체결됐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영국과의 계약도 성사시켰다. 총 80대 정도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둔 상태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 상사와 ‘열분해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크레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R&D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 작업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데이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플랜트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지능형 친환경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 탈(脫)플라스틱 가속… 사회를 위한 기술’의 자부심

편리함 뒤에 가려졌던 폴라스틱의 그림자가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전 세계가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각국은 폐플라스틱의 순환경 경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전 대표는 “시장은 진입기에 들어왔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고 본다”며 “재활용 정책은 정권 변화 속에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점점 우선 정책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술이다.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확신에 가득찬 시장 개척자의 모습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한국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된 국내 폴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로, 같은 해 유럽연합(EU)이 기록한 재활용률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예산은 ‘착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대학교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유럽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의 재활용률은 16.4%까지 떨어진다.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지난 2021년 대비 100배로 키운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전 대표는 “에코크레이션의 폐플라스틱 촉매 열분해 기술은 사회에 이바지하고,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이라며 “재활용을 위한 신기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자’의 자부심을 끌고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올림픽 앞둔 복슬레이 2인승 김진수팀, 월드컵 7차 대회서 4위

▲ 스노보드 최가온, 올림픽 앞두고 월드컵 시즌 3 번째 우승

/사진 뉴시스

▲ 포포비치, 마르샹 누르고 ‘유럽수영연맹 최고 선수’ 영예

▲ 쇼트트랙 김길리, 동계체전 1000m 우승… 대회 신기록

▲ EPL 울버햄튼 황희찬, 네덜란드 명문 PSV 이적설

▲ 한국계 오브라이언, 태극마크 가능성 커진다… “WBC 대표팀 합류 열망”